

# 이정은 “말을 못하니 낯선 얼굴 나와 나도 신기했어요”

‘내가 죽던 날’ 목소리 잃은 ‘순천댁’ 역  
 “연극 무대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김혜수, 매력적이고 멋진 배우…‘여신’”  
 ‘기생충’ 이후 기대감 ↑ …“응원 해주길”

“대학교 1학년 때 ‘너의 목소리 말고 너를 보여줘’라는 말을 들었어요. 언어를 배제한 순간을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었죠. 언어에 진심을 담거나 언어의 유희를 즐길 때도 있지만, 아예 없는 순간이 오기를 바라는 배우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작품으로 그런 순간을 만났죠.”  
 영화 ‘기생충’으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이정은은 이번에는 목소리 없이도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영화 ‘내가 죽던 날’에서 사고로 목소리를 잃은 섬마을 주민으로 변신, 묵직한 울림을 전한다.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정은은 “감정을 잃어내는데 소모되는 시간이 느린 게 좋았다”며 “자극적인 감정에 사람들이 시선이 가지 않, 호흡이 느린 작품을 하고 싶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내가 죽던 날’은 유서 한 장만 남긴 채 절벽 끝으로 사라진 소녀와 삶의 비랑 끝에서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민 무언의 목격자까지 살아남기 위한 그들 각자의 선택을 그린 이야기다.  
 이정은은 사라진 소녀를 마지막으로 본 무언의 목격자 ‘순천댁’ 역을 맡아 극의 무게감을 더했다. 무표정하면서도 미세한 표정 변화, 땀뻘뻘한 글씨체로 미스터리한 분위기와 함께 영화의 몰입도를 높였다.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잘 들으려고 했어

요. 표정을 따로 생각하진 않았죠. 말을 못하니 듣고 있는데 낯선 얼굴이 나와서 저도 신기했어요. 감독님도 일부러 뭐가 더 하지 말라고 했고, 편안하게 할 수 있었죠. 필체는 시골 어머니들이 쓴 시집의 원본을 구해서 비교해보니 공통의 필체가 있더라고요. 오른손으로는 예쁘게 써져서 왼손으로 연습을 했어요.”  
 이정은은 목격자인 ‘순천댁’을 속내를 알 수 없는 이로 표현했다. “형사물처럼 보이지만 휴먼드라마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부분들은 빼고 자연스럽게 감정이 흐르게 했어요. 앞부분에 모호하게 보이도록 연기했는데, 적절히 조화 된 것 같아요. 제가 역할을 잘 풀었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가진 손바닥의 굳은살과 세월을 감당한 얼굴이 표현해주죠.”  
 그러면서 자신보다 얼굴에 더 주름이 있고 진중해 보이는 배우가 했다면 더 잘 어울렸을 것 같다고 오히려 아쉬움을 표했다. “해안가에 사는 어머니들이 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통통한 얼굴에 주름을 만들 수도 없고, 분장을 더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연기를 했지만 아쉽더라고요.”  
 호흡을 맞춘 김혜수에 대해서 “멋진 배우”라고 극찬했다. 김혜수는 절벽 끝에서 사라진 소녀 ‘세진’(노정의)의 흔적을 추적하며 삶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형사 ‘현수’로 극 전체를 이끌어간다.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좋아하는 헤

수씨가 한다고 해서 과감하게 택했죠. 촬영장에서 처음 혜수씨가 찍은 걸 봤는데 화장이 없는 얼굴이 너무 매력적이고 좋았어요. 그 사람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파장이 있었어요. 선착장에서 함께한 장면은 현실 같았죠. 주변이 사라지고 오로지 우리 둘이 낯선 소음의 바닷가에 있는 기분이 들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이정은은 김혜수를 ‘여신’으로 부르며 환하게 웃기도 했다. “여신이 어느 때는 가까이 있더라고요. 만화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 같았어요. 친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가까우면서도 신기하죠. 혜수씨는 애정을 표현하는 게 솔직해요. 저는 평상시에 통명스러운데 혜수씨는 ‘좋으면 좋다’ 왕성하게 표현하는 게 부럽죠. 현장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들어줬어요.”  
 또 김혜수 덕분에 데뷔한 사람도 많으며 ‘농사꾼’이라고도 표현했다.  
 “좋은 연기를 하면 주변에 추천해줬다고 해요. 그냥 떠 있는 스타가 아니라 작품에 필요한 배우들을 일궈내는 ‘농사꾼’ 같죠. 저도 기회가 되면 척박한 환경의 연극배우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저는 연극배우인 걸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무대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죠.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에 놓인 배우들이 꿈을 잃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미국 아카데미 4관왕에 빛나는 ‘기생충’으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이후 그만큼 주변의 기대도 높아졌다. 최근 종영한 KBS 주말극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정은은 “연기할 때 가장 자유롭고 편하다”며 응원을 부탁했다.  
 “주말극 때 많이 시달렸어요. 평범한 역을 잘 못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다행히 정신력이 강해서 악플에 충격은 오지만 완화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길게 봐주시고 잘 될 때만 말고 못 될 때도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블랙스완 헤미, 반박 “잠자리 요구에 기피…빌린돈은 500만원”

5000만 원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사기 혐의로 피소된 그룹 ‘블랙스완’ 출신 헤미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0일 블랙스완 소속사 디알(DR)뮤직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고문변호사인 구교실 변호사(법무법인 천지로 대표)를 선임하고, 헤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협박죄, 성추행 등의 혐의”를 내세웠다.  
 또 헤미 사기 혐의와 관련 처음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명예훼손, 정정(반론)보도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함께 취하기로 했다.  
 디알뮤직 측은 “헤미에게 확인 결과 최초 보도된 내용이 왜곡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헤미 역시 디알뮤직을 통해 “우선 경솔한 행동으로 소속사와 팬 여러분께 누를 끼친 것에 사과드립니다”면서도 “보도에 따르면 sns를 통해 만났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프리카TV BJ로 잠시 활동하던기간 수도 없이 별풍선을 제공한 ‘아프리카 회장’(별풍선을 많이 협찬하는 사람을 속칭 회장이라고 함)이 있어, 고마운 마음에 만남을 가졌던 것이지만 다른 뜻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도 “A씨가 소속인 오피스텔에 와서 술마시며 남자친구가 되고 싶더라 잠자리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해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500만원이란 돈을 빌린 것 외에는, 대부분 A씨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

공한 것이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주장했다.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지만, 성적인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았다. 오피스텔 보증금이라고 표현된 금액도 고소인 주장과 같이 수천만원이 아닌 12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빌린 500만원도 11월 이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고, 여자로서 계속 잠자리요구나 만나자고 하는 것이 무서워 연락을 피한것이지 사기를 치거나 악의적으로 잠수를 탄적이 없다”면서 “어차피 활동을 시작하는데 잠적은 할 수가 없다. 법적 소송을 통해 조목 조목 모든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헤미는 “오피스텔을 남자들과의 비밀 데이트 장소로 이용했다는 등 이상한 여성으로 표현한 것은 참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사실을 입증할 증인과 증거가 다 있다”고 주장했다.  
 디알뮤직에 따르면, 헤미는 현재 디알뮤직 소속이 아니다. 2015년부터 라니아 멤버로 계약이 돼 있었고, 6개월 계약기간을 남긴 상태에서 블랙스완 데뷔 첫곡 활동으로 마감하는 조건으로 합류했다. 지난 7일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태.  
 하지만 디알뮤직 관계자는 “사실상 개인적 일에 회사가 대응할 의무는 없지만, 헤미를 적극 도울 것이다. 무책임한 악의적 폭로로 심혈을 기울여 론칭한 프로젝트에 결정



적 흥이 갔으니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의 뜻을 밝혔다.  
 전날 온라인 연예 미디어 ‘디스패치’는 헤미가 직장인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헤미가 약 5000만원을 빌리고 갔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청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헤미는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다. 블랙스완은 헤미가 빠진 상태지만, 방송 출연이 불발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블랙스완은 우선 11일로 공식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헤미는 2015년 걸그룹 라니아로 데뷔했다. 최근 이 팀을 기반으로 재편성된 블랙스완으로 재데뷔했다. 지난해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예선에 참가하기도 했다.

## 지효·강다니엘, 공개열애 1년3개월 만에 결별

톱 아이돌 커플로 통한 그룹 ‘트와이스’ 지효(23)와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24)이 결별했다.  
 10일 온라인 연예미디어 디스패치는 “강다니엘과 지효가 열애의 마침표를 찍었다. 공개 열애 1년3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지효 측은 결별사실을 인정했다. 강다니엘 측도 곧 같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결별 이유는 어느 연예인 커플과 마찬가지로, 바쁜 스케줄 탓에 서로 소원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다니엘과 지효는 지난 2018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가요계 선배로 지난해 열애 감정이 피어올랐다. 지난해 8월부터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  
 지효는 국내 톱 걸그룹인 트와이스에서 리

더를 맡고 있다. 트와이스는 최근 새 정규 앨범 ‘아이즈 와이드 오픈’을 발매하고 타이틀곡 ‘아이 캔트 스톱 미’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강다니엘은 한 때 신드롬을 일으킨 워너원에서 센터를 맡은 톱 아이돌이다.  
 워너원을 결성시킨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의 ‘프로듀스 101’ 시즌 2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솔로로 전향했다.  
 최근 새 앨범을 준비 중이다.

## 이승기 “오디션 나간다면 박완규 노래 부르고파”

‘싱어게인’서 MC 맡아…오는 16일 오후 10시30분 첫 방송



가수 이승기가 오디션 참가자가 된다면 부르고 싶은 노래로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을 꼽았다.  
 JTBC 오디션 프로젝트 ‘싱어게인’ 측은 첫 방송을 일주일 앞둔 9일 MC와 심사위원이 오디션 참가자가 된다면 부르고 싶은 ‘단 한 곡’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먼저 MC를 맡은 이승기는 “내가 무명가수이고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오디션에 나간다는 상상만으로도 벌써 힘들다”며 “그래도 내 정체성인 록발라드를 곡을 부르지 않을까, 박완규 선배님의 ‘천년의 사랑’을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주니어 심사위원장 규현은 전라가다운 면모를 뽐냈다. 그는 “(내가 참가자라면) 심사위원의 노래를 부를 것 같다. 심사위원이 되어보니 내가 나의 노래를 불러준다면 정말 고맙고 설렘 것 같기 때문”이라며 “만일 내가 ‘싱어게인’의 참가자였다면 유희열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심사위원들 중 자신의 노래를 불러주면 가장 좋아할 것 같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주니어 심사위원 선미와 송민호는 자신의 색깔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본인의 노래를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선미는 “솔로로서의 나를 처음으로 선보인 ‘24시간이 모자라’를 오디션 곡으로 선택할 것 같다.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언급했고, 송민호는 “저는 역시 노래보다는 랩을 할 것 같다. ‘겁을 부르지 않을까’라며 오디션에서 극찬을 받았던 음악을 선택했다.”  
 이혜리 심사위원은 오디션에서의 긴장감을 곡에 몰입해 극복하고 싶다고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꼽았다.  
 그는 “물론 다비치의 곡 중에서 꼽으라고 해도 많은 노래를 고를 수 있겠지만, 김현식 선배님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내 감정에 가장 빠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관록의 시니어 심사위원들은 긴 노래 인생 안에서 어떤 음악을 ‘단 한 곡’으로 꼽았을까. 먼저 유희열 심사위원은 “내가 직접 ‘싱어게인’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걸 상상도 하기 어렵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작곡으로 승부할 것 같다”며 “나를 처음 세상에 알렸던 토이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을 부르고 싶다”고 했다.  
 심사위원 중 유일한 작사가 김이나는 “내가 노래를 잘 부른다는 전제하에(웃음) 프랭크 시나트라와 ‘마이 웨이(My Way)’를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부르는 가수도 박자오르는 곡”이라고 ‘My Way’를 소개한 김이나는 “나이가 들어보니 그 노랫말과 멜로디에 담긴 힘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실패할 땐 허탈하다 할 만큼 했다. 이게 나의 길이다를 보여줄 수 있는 곡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선희와 전인권 심사위원은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을 선택했다. 전 위원은 “가장 좋아하는 곡이자 나 자신에 대해 직접 쓰고 부른 노래”라며 ‘사랑한 후에’를 꼽았다. 이선희는 “어렸을 때라면 3-4분 안에 내 장점이 가장 돋보이는 곡을 전략적으로 선택했겠지만, 지금이라면 내 나이에 맞는 메시지가 있고 따뜻한 노래를 고를 것 같다”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자 여유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안부’를 부르고 싶다”고 말해 몽클함을 자아냈다.  
 주니어 심사위원 선미와 송민호는 자신의 색깔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본인의 노래를  
 16일 오후 10시30분에 첫 방송된다.